익숙함 너머 낯섦을 대하는 눈부신 청춘 '5人5色'

광주미술관 청년예술센터 제10기 입주예술가 발표전…6일부터 15일까지

김명진·박래현·박의천·윤석문·이유빈, 창작 열정 결과물 선봬
자신만의 언어로 바라 본 세계의 무한한 가능성, 관람객과 공유

다섯명의 청년작가가 각자만의 시선으로 변화의 문턱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는 과정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광주미술관 청년예술센터의 2026년 입주작가 5명이 그간 창작활동을 결과발표하면서 지역 문화예술계 지원의 결실을 맺는 의미있는 자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미술관은 오는 6-15일 광주미술관 청년예술센터 전관(남구 사직길 12)에서 청년예술센터 제10기 입주예술가 발표전 '손잡이를 당기는 방법'을 개최한다.

광주미술관 청년예술센터는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지난 2016년 청년예술인지원센터로 개관했다. 2017년 1월 정식 입주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90명(팀)의 예술가가 함께해 왔으며, 올해는 다섯 명의 청년 작가가 입주해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결과발표전은 김명진, 박래현, 박의천, 윤석문, 이유빈이 입주 기간 동안 이어 온 창작과 탐구의 과정을 선보이는 자리다. 서로 다른 관심과 감각, 표현 방식을 바탕으로 각자의 예술적 질문을 발전시켜 온 작가들은 이번 전시에서 자신만의 언어로 바라본 세계와 그 안에서 발견한 가능성을 관람객과 공유한다.

전시 제목 '손잡이를 당기는 방법'은 익숙한 세계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는 과정을 담았다.

이번 전시는 문을 여는 행위 자체보다 문을 여는 서로 다른 방법에 주목한다.

다섯 작가는 '상처와 관계, 일상의 선택과 태도, 공존의 상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기억과 위로' 등 각기 다른 주제를 통해 자신이 마주한 세계를 탐색하는 회화, 사진, 영상, 설치작품 등 30여점을 선보인다.


김명진作 '겉에서 속까지 가리는 것 없이'

김명진은 갈라지고 단절된 피부를 다시 꿰매고 연결하는 행위에 주목한다. 봉합을 벌어진 틈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시도로 보는 작가는 혐오와 배제로 훼손된 몸과 마음의 흔적을 드러내며, 서로 다른 피부가 맞닿는 순간, 상처가 새로운 시작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모색한다.

박래현은 청년예술센터의 공간과 그곳에서 생활하는 작가들을 기록하며 일상 속 선택과 삶의 태도를 살핀다.


윤석문作 '꼭꼭 숨어라'

박의천은 마음속에 축적된 감정과 생각을 낯선 인물과 크리처, 뒤틀린 신체와 다양한 요소가 뒤섞인 형상으로 변환하고 이를 통해 평범한 일상 이면에 감춰진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드러낸다.

윤석문은 동물의 이름을 부르며 투명한 벽을 두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와 감각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유빈作 '낯선 땅'

이유빈은 기억을 잃고 점차 낯선 세계로 멀어져 가는 소년이라는 은유를 통해 할아버지를 떠나보낸 기억을 되짚고 길을 잃은 자리에도 위로와 평온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낸다.

/오복 기자

'턱 없는 무대, 끝 없는 예술' 나래를 펴다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 3-11일 2026 예술날개 페스티벌 개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로 하나되는 자리가 마련된다. 장애예술인들은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장애예술의 지속적인 창작과 무한한 가능성을 선보인다.

광주문화재단은 '2026 예술날개 페스티벌'을 3-11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개최한다. 올해 7회째를 맞는 페스티벌은 광주형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예술인 활동단체 8개와 장애인복지관 7개 등 총 15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시와 공연, 아티스트 토크쇼 등을 진행한다.

지역 장애예술인 활동단체와 장애인복지관의 연간 문화예술 활동 성과를 나누고 장애예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이번 페스티벌은 '턱 없는 무대, 끝 없는 예술'을 주제로 참여 작가 122명이 각자의 경험과 시선으로 완성한 미술·공예 작품을 선보인다.

5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는 빛고을시민문화관 다목적실(4층)에서 '리얼타임 아티스트 토크쇼 in 광주'가 진행된다.


지난해 열린 2026 예술날개 페스티벌 공연 모습

개막식은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1-2층)에서 진행된다. 이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장애예술인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에서는 ▲동구장애인복지관의 뮤지컬 '심봉사가 떴다' ▲남구장애인복지관의 뮤지컬 '반짝 상담소2 : 내가 서는 무대' ▲시각장애인복지관의 모듬북 연주 ▲서구장애인복지관의 하프 연주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의 리듬악기 연주 ▲라르브르 앙상블, 모자이크, 오티크 앙상블, 유니크 앙상블의 기악 연주 등을 만날 수 있다.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관람 접근성도 높인다. 전시장에는 전시·작품 소개 수어 영상과 음성 안내를 제공하고, 전시 전체 안내 1개와 참여단체별 안내 7개 등 총 8개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오복 기자

존재감, 그대로 '나 만의 美'

광주예술의전당 전시지원 공모전 '박성휘 : I Am Venus'…29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예술의전당은 현대 여성의 모습과 내면을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풀어낸 박성휘 작가의 개인전 'I Am Venus'를 오는 2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여성의 인체와 표정, 몸짓을 통해 풍요와 생명력, 그리고 사회가 규정한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회화 30여점을 선보인다.


'Together'

고대의 비너스에서 출발한 박성휘의 작품은 이상적으로 다듬어진 신체와는 다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풍만하고 과장된 인체와 익살스러운 표정, 묘한 눈빛을 지닌 인물들은 친근하면서도 개성 있는 모습으로 관람객과 마주한다.

작가는 이를 통해 외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성의 자유와 생명력을 표현한다.

박성휘 작가는 "전시명 'I Am Venus'는 비너스를 과거의 신화 속 존재에 머물게 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며 "완벽함을 요구하는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여성들을 표현하고 아름다움의 기준에 질문을 던지며,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전시"라고 설명했다.

/오복 기자

